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14일 의정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 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입법 평가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입법평가를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지원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자료와 입법·법률고문단의 검토를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 '블럭팡팡', 자활사업단서 자활기업으로 도약

정읍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실내 놀이시설 '블럭팡팡'이 자활사업단을 넘어 정식 자활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인정서 수여식을 열고, 블럭팡팡의 성공적인 자립을 축하하며 새 도약을 응원했다. 블럭팡팡은 2019년 1월 정읍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개시 이후 지역 아동들과 주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해 왔고, 이것이 이번 자활기업 인정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

이번 인정으로 '블럭팡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 자금은 전세보증금, 임대료, 시설 및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인건비도 지원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산동면,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간담회 진행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월 13일, 남원시가 폭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이해증진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87가구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간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과 함께 압화 꽃을 이용한 무드등 제작 등 소통하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부부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쉽게 알아갈 수 있었고, 함께 체험하며 대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주민자치위원 20여명, 지역발전협의회원 10여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직접 심고 기른 배추 900여 포기를 갖은 양념과 함께 버무린 뒤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달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서창배 주민자치위원장은 “김장 나눔 사업은 배추 식재부터 김장까지 모든 과정 속에 노고와 사랑이 담긴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지역사회단체가 하나되어 따뜻한 교월동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 발전·군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 인정

내달 2일 '제16회 고창군 애향대상 증정식' 서... 오균호·배상수·고경순 씨 수상

고창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백영종)가 '제16회 고창군 애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고창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 공로가 큰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애향대상에는 오균호씨, 애향특별상에는 배상수·고경순 씨가 각각 선정됐다.

애향대상 수상자인 오균호씨는 고창군의회와 전북도의회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고창의 자금식 함양과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부안고창축협장과 고창군세마을운동지회장 때에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청정한 고창만들기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배상수씨는 고창의 육상발전을 위해 고창초등학교 전문지도사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선수발굴로 2025년 소년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땀다. 고경순씨는 20여년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가 없는 시 어머니를 자극히 봉양해 왔다.

백영종 고창군애향운동본부장은 “뜨거운 애향심으로 고창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마다 장학금 수여로 지역의 꿈나무를 키우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애향운동본부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6회 고창군 애향대상 증정식'은 오는 12월2일 열릴 예정으로, 고창군민과 향우들이 함께 수상자를 축하하며 애향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고창군애향운동본부는 1977년 출범하여 45년간 애향활동을 펼치는 지역 대표단체로서 군민화합교례회, 장학금 수여, 애향대상 선정 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마을이 함께 만드는 농촌기본사회' ... 진안에서 시작한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주간·마을공동체 한마당 성료

진안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안군 문예체육회관 등 5개소에서 '2025 진안군 마을만들기 주간 및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과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 470여 명이 참여해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농촌기본사회를 향한 공동체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진안군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우수마을 시상식, 성과 공유회, 공동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주민 주도형 공동체 발전의 모범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어 사통팔달센터에서 '농촌기본사회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주간 김장만마당'이 열려 주민들이 직접 담근 김장이 지역이동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달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마이골 작은영화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출연한 마을 영화 시사회가 열려, 진안 마을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일원장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전구네트워크 대화모임 및 활동가 교류회가 진행되어, 지역 안팎의 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안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계획단 운영 △준공시설 활성화 활동 △마을영화 제작 △소규모 공동체 활동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동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청소년 생활·진로·안전정책 논의... 장수학생의회 정기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주영곤)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장수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장수학생의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장수지역 학생의회 의원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의 생활·안전·진로와 관련된 4개 안건을 직접 논의하고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력교사와 업무담당자의 지원 속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학생의원의 학부모도 방청석에서 참관해 학생자치의 성장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군의원,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협력 교사 등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여가·체육 공간 문제, 전공체험 기회 확대 필요성,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야간 귀가 안전 강화 등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주영곤 교육장은 “학생의 시선에서 지역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미래 민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며 “학생 자치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 의회 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학부모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지역학생의 회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 계화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큰 호응'

부안군 계화면(면장김화순)은 올해 본격 시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국 시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하나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주민센터 민원, 은행 업무, 병원 접수 등 다양한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분실 위험이 줄고, 지갑을 두고 와

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이 가능해 주민 만족도가 높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QR코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 행정 처리 속도도 빠르다는 것.

발급 절차도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화순 계화면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변화”라며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해 편리함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수노인복지관 장계분관·전북유니텍고, 반찬 나눔

장수노인복지관 장계분관, 전북유니텍고, 반찬 나눔 장수군노인복지관 장계분관(관장 정효영)은 최근,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조리동아리 '늘먹던걸로'와 함께 장계·계남·계북·천전 북4개면에 거주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소외계층 어르신 60명을 위한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요리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요리하고 전달하는 나눔 실천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조리과 1~3학년 학생 13명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에는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다.

장수군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돕고 나누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개최

부안군 부안읍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제3회 부안읍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작품발표회는 수강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물놀이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7개 프로그램(생활체조, 시극, 고고장구, 시낭송, 색소폰 연주, 가요교실, 사물놀이)의 무대 공연과 문인화 및 문예창작반의 작품전시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작품발표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자기계발 기회 및 수강생 간의 공감의 장을 마련해준 위원회에 감사함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하서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부안군 하서면(면장 박현선)은 지난 14일 하서면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한 사업 참여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온용품(한팩)을 지급했다.

이 교육은 겨울철 한파와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행 시 주의사항, 작업 중 체온 유지 요령,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서면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참여자 전원에게 한팩을 전달하며 훈훈한 점을 나눴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가구나눔 지역사회사랑 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3일 김제시에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생들이 손수 제작한 가구 3점을 관내 장애인 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형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언어·청각장애인 대상 목공예 교육과정 '주거지킴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배움의 손길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생들 재능기부 일환으로 직접 제작한 4단 수납장과 장롱을 관내 기관 추천인 3세대에 전달해 더욱 의미를 가졌다.

조미선 센터장은 “언어·청각장애인들이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성취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모습이 자랑스롭다. 앞으로도 장애인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